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과의 관계

지도교수 황 희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오 미 경

오미경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31일

주 심 철학박사 김정섭 (인)

위 원 철학박사 이희영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희숙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4.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양육태도	6
2. 다중지능이론	15
3. 양육태도와 다중지능의 관계	24
III. 연구 방법	28
1. 연구 대상	28
2. 측정도구	28
3. 자료의 처리	35
IV. 결과해석 및 논의	36
1.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36
2. 다중지능과 남녀 중학생간의 차이	38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의 관계	40
4.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43
5. 논의	51

V. 요약 및 결론	58
1. 요약	58
2. 결론	60
3. 제언	62
참고문헌	63
부록 1. 부모 양육태도 검사	70
부록 2. 다중지능 검사	75

표 목 차

<표 III-1>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질문지 구성과 신뢰도 계수	29
<표 III-2> 부모 양육태도 차원의 특징	30
<표 III-3> K-MIDAS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32
<표 III-4> MIDAS에서 측정하는 다중지능과 각 하위영역	33
<표 III-5> MIDAS에서 측정하는 다중지능과 각 하위영역의 정의	34
<표 IV-1>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남녀 중학생간의 차이	36
<표 IV-2>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남녀 중학생간의 차이	37
<표 IV-3> 다중지능과 남녀 중학생간의 차이	39
<표 IV-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	40
<표 IV-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	42
<표 IV-6> 부모의 양육태도와 남중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	43
<표 IV-7> 남중생의 다중지능 하위척도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모형	45
<표 IV-8> 부모의 양육태도와 여중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	47
<표 IV-9> 여중생의 다중지능 하위척도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모형	49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Multiple Intelligence

Mi-Gyung Oh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g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multiple intelligence. This study will have educational implications to improve educational conditions that develop the latent power of students and get parents to rear the students desirabl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upposed to perform the study;

First,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parents'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ex?

Second,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multiple intelligence according to sex ?

Third, is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the parent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students and multiple intelligence?

Fourth, how does parent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ffect multiple intelligence?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244 graders from two middle schools in Busan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s. The means were based on tests of child-rearing attitudes executed by Oh Seong-Sim and Lee Jong-Sung (1982), and tests of intelligence restructured by Kim Hyeon-Jin which were created by

shearer(1995). SPSSWIN was adopted in analyzing T-test, correlativ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brief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parents'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ex statistically, girls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 more positively.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ultiple intelligence according to sex.

Third, parent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students was related to their multiple intelligence irrespective of sex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Fourth, linguistic intelligence was most influenced by parent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boys in the sub-category of multiple intelligence, in case of girls, spatial intelligence was most influenced.

Based on the above analys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statistically. as a whole, girls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 more positively than boy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parents rear girls more generously than boys.

In the future, parents as the first and life time educator, should rear the students consistently and affectionately so that the intellectually, emotionally positive progress in their behavioral development could be made. parents should put their effort on seeking the desirable rearing attitude, getting them grow in a good environment in which they could show their latent power, and be associated with others.

Second, the multiple intellig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statistically.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in musical intelligence, spatial intelligence, linguistic intelligence, interpersonal intelligence, naturalist intelligence. The degree of multiple intelligence of boys was

higher than that of girls in bodily-kinesthetic and logical-mathematical part. in musical, spatial, linguistic, interpersonal, intrapersonal, naturalist part, that of girls was higher than of boys.

Third, parent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multiple intelligence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according to statistics. Girls were more influenced by parent's rearing attitude than boys, interpersonal intelligence and linguistic intelligenc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arents' rearing attitude. This result implicate that the affection and achievement desire of parents can make students behave pro-socially, get along with others.

Fourth, the achievement desire of parents in parents' rearing attitude was related to the multiple intellig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parents' rearing attitude was very important factor to affect the multiple intellig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So long as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aimed that the latent power of student could be found and enlightened, parents should rear the students with achievable, affectionate, autonomous and rational attitude so that they could enlightened their concealed latent powe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써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다양한 운영과 자기 주도적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교육부, 1999).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현재의 추세는 정형화된 틀에 학습자를 맞추기보다는 학습자 개인의 자질을 존중하고,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도와 분위기 형성에 주력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다(전선재, 2003).

이러한 관점에서 Howard Gardner(1983)의 다중지능 이론(multiple intelligences theory)은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추세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중지능 이론은 어느 한 분야에서 장점을 보이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뒤떨어질 수 있으며, 어느 한 분야에서 열등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장점을 보일 수 있는 바, 그러한 장점의 분야를 그들의 지능으로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찾고 나아가 개개인의 발전을 돕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중지능이론이 학교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다중지능의 기초 형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정은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단위이며, 인간이 태어난 후 최초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학습하는 장의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며, 자녀에게는 최초의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태도로 키웠느냐 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의하고 있으며 각 형태별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 및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문선모, 1980; 전선재, 2003; 최영희, 2004). 이와 같이 볼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하가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다중지능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중지능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평가도구로서의 타당성 연구(김현진, 1999; 정대현, 2003; 최기란, 2002), 프로젝트 적용연구(김옥희, 1999; 왕경순, 1998; 장성희, 2003; 천광희, 2001), 프로그램의 효과성 관련 연구(김주영, 2002; 육미수, 2001; 윤군자, 2003; 이영아, 2002; 정황순, 2001), 학업성취도 관련 연구(김명희, 김양분, 1996; 류숙희, 1996; 이길호, 2002; 조선옥, 1999; 최정민, 2001), 가정환경과의 관계연구(김향자, 2000; 최민자, 2003; 최윤진, 2002), 정서지능과의 관계연구(임은혜, 2002; 정영숙, 1998)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관계나 영향에 관한 연구(강희진, 2004; 김경숙, 2001; 김정원, 2002; 김지애, 2003; 안현지, 1999; 장현영, 2003), 성취동기와의 관계 연구(이경화, 1992; 이윤우, 2003; 정갑순, 2002; 정인, 2000),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성연, 1981; 방나영, 1995; 이지현, 1996; 정갑순, 2002)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

진한 상태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깊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므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기대수준은 차이가 있어 이것이 양육태도에 반영되어 이로 인해 양육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안현지, 1999, 재인용). 또한 지능의 성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에 아동의 언어적 능력은 여아가 우위인데 반하여 수리적인 능력은 남아가 우세하고, 남아는 여아보다 공간지각력이 뛰어나며 단순한 기억력이나 수공력은 여성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임은혜, 2002,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을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여 개개인의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게 하고, 교육기관에는 학생의 다중지능 형성에 대한 부모교육의 활성화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중지능은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양육태도

양육태도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내현적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유형을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연구에 근거하여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나. 다중지능

다중지능이란 중요한 문제해결 능력 혹은 문화적 산물을 창출해내는 능력이다. 문제해결 능력은 문제를 파악한 후 목적을 설정하여 그 목적달성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고, 문화적 산물은 지식을 알아내고 전달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관점을 표현하면서 생겨나는 결정체이다(Gardner, 1993). 본 연구에서는 다중지능의 하위요인을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대인관계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개인이해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연주의지능(naturalist intelligence)의 8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양육태도 검사와 다중지능 검사는 자기보고 형식의 검사도구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요구와 선호를 잘 알고 있지만, 사회적인 가치에 기준을 두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Ⅱ. 이론적 배경

1. 양육태도

가. 양육태도의 개념

인간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다. 환경은 유기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며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다.

한 개인이 태어나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최초의 환경은 가정이다. 가정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이며, 아동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체이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 대한 최초의 교육자이며 모델로서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인간 생활의 원초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지능, 도덕, 창의성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문선모, 1980), 그들이 생활하는 가정은 최초의 사회로서 아동은 부모가 요구하는 문화 내용과 규범을 익혀가게 된다. 즉 말과 관습을 배우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와 정서, 인성을 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을 어떠한 태도로 키웠느냐 하는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진정남, 2002).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시기별로 변환되어 왔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엄격한 훈육 및 체벌이 가장 효율적인 양육태도라고 여겼었다. 18세기에 들어 소아의학 및 심리학의 발달은 양육태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켰고 부모

의 태도변화도 수반되었다. 프로벨은 어린이의 최초의 교육장소인 가정에서의 교육을 중요시하여 '어머니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를 저술하여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시도하였다. 그 이후에 Freud, Watson은 특히,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들의 이론에 의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1946년에는 미국에서 '정신위생관계법'이 통과를 하게 될 정도였다.

이 법은 부모의 양육태도 이론이 발전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법이 통과되자 미연방정부는 주 정부로 하여금 정신위생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부모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 자신이 자기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건전한 부모-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이원영, 1983).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며, 이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와 유형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아동의 인격이나 태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는 어머니로서 Hurlock(1950)은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 자아개념, 도덕성, 정서적 안녕감 및 성격 등 아동발달의 광범위한 영역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Fishbein과 Ajzen(1975)은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서 가족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

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원영(1983)은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전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말하며, 자녀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고, 서동미(1997)는 유아에 대해 어머니가 나타내는 반응 양식은 개인 또는 그 사회마다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일정한 문화양식의 범주 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 또는 행동의 경향성과 반응 양식을 양육태도로 보았다.

권준희(1998)는 부모가 나타내는 반응양식은 개인 또는 그 사회마다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일정한 문화양식의 범주 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 또는 행동의 경향성과 반응양식을 양육태도라고 하였다.

양육태도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양육태도란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형태이며 행동에 대한 반응양식으로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어떠한 태도로 키웠느냐 하는 양육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및 행동적 모든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는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원만한 가정 분위기를 유지하고 일관된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이다(최영희, 2004).

나. 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이론화한 사람은 Symonds(1949)인데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보호적, 우세적, 거부적, 복종적으로 분류하였다. Heyns 역시 Symonds처럼 양육태도를 분류하고 있다.

Symonds의 이론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하려했다는 점에서 공헌한 바 있으나 어머니의 태도를 정상적인 기준에 의거 설명하는데는 실패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되었고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모의 태도에 대한 이론이 정신분석학 이론에 힘입었으며 많은 연구들이 임상사례에 의거하여 부모의 태도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이원영, 1983).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한 Schaefer는 Symonds와는 다른 이론 모형을 발표하였다. The Berkeley Growth Study의 일환으로 Schaefer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연구하였다. 30여년 동안의 기록에 의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두 개의 축, 즉 애정-거부의 축과 자율-통제의 축으로 분류하였다.

Schaefer가 분류한 양육태도 모형에 따른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자율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자주적, 민주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이다. 이러한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들은 지적 발달이 높고, 사교성이 좋아 사회적응을 자신 있게 하며,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오금희, 1985). 그러나 가정 외에서 잘 적응하는 이러한 아동들도 집에서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약간의 공격성, 고집을 보일 때가 있다(이원영, 1983). 둘째, 애정-통제적인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과보호형 양육태도이다. 이런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의 새로움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제한하고 새로운 반응습득의 기회를 축소시킨다. 따라서 애정-자율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보다 애정-통제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더 의존적이고 사교성, 창의성이 적은 편이며 불안정한 정서를 지니게 된다(최영희, 2004, 재인용). 셋째, 거부 자율적인 태도는 자녀를 수용 및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으로 거리감, 무관심, 소홀, 냉담한 양육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부모에게서 자란 아동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자주성, 자발성, 독창성이 부족하여 주체성이 결여되며 자신감이 없는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김숙자, 1989). 넷째, 거부-통제적인 태도는 자녀를 따뜻하게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을 처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양육태도이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들은 자아에 대한 분노가 발생하며 내면화된 갈등, 고통을 많이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학적, 퇴행적이 되기도 한다(이원영, 1983).

Hurlock(1950)은 양육태도를 부모의 기대수준, 부모의 일반적 태도, 익애적 태도,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허용적 태도, 수용적 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Baldwin(1955)도 부모 행동의 평정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로, 가정의 분위기를 민주적, 통제적, 익애적, 거부적 가정으로 유형화한 바 있다(오성심, 이종승, 1982). Roe와 Siegelman(1963)은 애정, 거부, 방임, 요구, 관심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ecker(1964)는 온정-적대와 허용-제한의 차원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민주적-권위적, 과잉보호-무시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Baumrind(1967)는 독재주의적 태도, 허용주의적 태도, 권위주의적 태도로 분류하였으며, Perris 등(1980)은 Jacobson, Fasman과 DiMascio(1975)에 의해 구조화된 양육태도의 10개 요인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편애, 성취지향, 죄책감 조장, 자극의 4개 요인을 추가하여 EMBU를 개발하였는데, 요인분

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크게 거부, 온정, 과잉보호, 편애의 4요인으로 구분되었다(허묘연, 2000, 재인용).

국내 연구로는 오기선(1965)의 연구가 비교적 초기에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버이와 자녀 진단 검사」에서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즉 거부(소극적 거부형, 적극적 거부형), 지배(엄격형, 기대형), 보호(간섭형, 불안형), 복종(익애형, 맹종형), 모순·불일치(모순형, 불일치형) 등을 알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강희진, 2004, 재인용). 차재호-이원영(1974)은 요인 분석을 통해 온정-냉정과 보호-방임, 허용-제약, 안달-태평의 4차원으로 구분하였고(이윤우, 2003, 재인용), 이상로(1979)는 정서적 차원(온정-냉정), 보호적 차원(과보호-방임), 관심적 차원(지나친 관심-무관심), 기대적 차원(지나친 기대-무시), 통제적 차원(자율-통제), 지시적 차원(민주적 수용-민주적 거부), 권위적 차원(권위적 수용-권위적 거부)의 하위 차원으로 나누었고, 정원식(1979)은 가정환경을 지위환경, 구조환경, 과정환경의 측면에서 분류하고 가정의 과정환경을 다시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안일, 개-폐쇄로 세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설명하고 있다(정명희, 2001). 한종혜(1980)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자율-권위·통제의 두 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정인, 2000).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Schaefer의 양육태도 이론을 근거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Schaefer의 모형인 애정-적대, 자율-통제 차원과, 정원식의 이론 중 성취-비성취 차원, 그리고 Hebb와 Bernstein의 이론에 기초를 둔 모형 중에서 합리-비합리 차원을 포함시켜 지금까지 유형화된 부모의 양육태도 차원이 거의 포함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분류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애정-적대 차원에서 애정적 태도란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며 헌신적이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상담이나 칭찬, 격려 등을 아끼지 않는 반면, 적대적 태도는 자녀의 의견이나 행동에 무관심하며 자녀를 위한 시간을 별로 내주려 하지 않고 비난이나 체벌을 자주 가하며 자녀의 단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율-통제 차원에서 자율적 태도란 자녀의 개성, 의견, 권리를 존중하여 지나친 감독과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처리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하는 반면에, 통제적 태도는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전제적이며 제한을 많이 두고 설명이나 이유보다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복종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성취-비성취 차원에서 성취적 태도란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여 달성하기를 격려하고 인내와 근면성을 권장하고 끈기있게 집중하여 일을 해내도록 기대하지만, 비성취적 태도는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책임완수의 여부에 무관심하며 새로운 일이나 경험, 호기심 등에 대한 요구에 비협조적인 것을 말한다.

합리-비합리 차원에서 합리적 태도란 일의 동기나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고 자녀양육에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비해, 비합리적 태도는 자녀가 말하는 이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의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쉽게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임상옥, 2003). 또한 김영숙(1988)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 익애적 태도, 모순·불일치 태도 등 5가지로 분류한 바 있고(정인, 2000), 이숙(1988)은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인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7가지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허묘연(2000)은 부

모의 양육행동 척도에 대해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통해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의 8개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문제행동 집단과 비문제행동 집단(문제행동을 나타내지 않는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 43문항의 평가도구를 만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네 개 영역으로 분류한 양육방식에 따라 부모양육태도와 다중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세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전선재, 2003; 최영희, 2004). 최근에는 아동이 주변의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논의되고 있다(안현지, 1999; 이숙, 1988).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적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성장 발달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란 자녀에 의해 오랫동안 관찰되고, 다른 부모와 비교된 결과로 형성된 것이므로 비교적 안정된 것이고, 실제의 양육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의 양육태도와는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태도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심리적 장, 또는 행동적 환경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태도와 반드시 일치될 수 없다(최영희, 2004).

김성연(1981)은 자녀의 정의적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들이 진솔한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보고하면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자율적인수록 부모가 지각한 경우보다 아동의 발달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정원(2002)은 아동에 의하여 지각된 양육태도가 어머니에 의하여 지각된 양육태도보다 아동의 정서지능의 더 많은 하위 요인들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지애(2003)는 어머니의 애정적·자율적인 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어 유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은 높아지고, 어머니의 적대적 통제적인 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는 부적의 상관이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제 발달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알려진 어머니의 양육태도 관련 요인을 볼 때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보다 아동 자신들의 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신의 지각양식이나 과거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인간의 지각행동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으로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영희, 2004). 그러므로 부모들은 아동에게 충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에게 늘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복종과 통제를 피하며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게 하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칭찬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일관성 있고 바

랍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2. 다중지능이론

가. 다중지능 개념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은 1970년대까지 심리 측정적인 입장에서 개념화되었던 지능이론과 지능검사, 지능지수 및 지능의 요인이론 등을 비판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Gardner는 총체적인 일반 지능을 가정하는 지능의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저서인 ‘마음의 틀(frames of mind)’에서 지능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여러 종류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Gardner(1983)는 지능을 보다 다원적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문제 해결 능력’ 또는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형성된 산물을 창조해내는 능력’으로 보았다. 고전적 관점에서 보는 지능은 수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추론 능력에 불과하며 그 외에도 인간에게는 다양한 지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이나 Sternberg의 정보처리이론에서 다루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도 논리 수학적 능력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의 전체적인 일반적 지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수한 지능을 표현하도록 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기초로 생물학적, 문화인류학적 증거를 들어 지능에 대한 기준

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인간의 여덟 가지 지적 능력을 설정하였다.

나. 다중지능의 종류

Gardner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자료를 수집, 관찰, 분석하여 여덟 가지 준거를 충족시키는 8가지 지능을 제시하였다.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은 전형적으로 학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지능이며,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은 예술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지능이다. 대인관계지능과 자기이해지능은 하나로 묶어 인성지능(personal intelligence)이라고도 한다. 영성지능, 실존지능, 도덕지능 등은 현재 다중지능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지능들로 고려하고 있다. 각 지능의 정의와 각 지능 발달에 관련하여 Gardner(1983, 1993, 1999)가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악지능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이란 음악 애호가와 같은 지각력, 음악 비평가와 같은 변별력, 작곡가와 같은 변형 능력, 연주자와 같은 표현 능력을 말한다. 이 지능은 리듬, 음의 높이, 멜로디에 대한 민감성과 악곡의 음색에 대한 지각을 포함한다.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적이고 기능적인 능력 모두를 의미한다(정태희, 1998). 생후 2개월이 되면서 엄마의 자장가의 가락과 음조를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음악적 지능의 발달이 시작된다. 취학연령 이후에는 기술적 측면 외의 음악적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락, 리듬, 소리의 맵시와 음악의 감정을 알아낼 수 있고, 음의 세계에 매우 예민하며 음을 기억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음악비평가, 작곡가, 연주가가 될 수 있다(Gardner, 1999).

(2) 신체운동지능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은 몸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정교하고 세련된 동작을 연출하는 능력 등을 일컫는다. 무용수나 운동선수와 같이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과 구기 종목 운동선수 같이 손가락이나 손의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 결국 신체운동지능은 특수한 신체적 기능인 조정, 균형, 손재주, 강도, 유연함, 신속함, 촉감 등의 능력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Armstrong, 1994). 어린 아기는 대근육에서 소근육의 순서로 신체가 발달되며, 이 지능에서 뛰어난 아동은 춤, 운동경기 등의 상징체계를 숙달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이 몸을 적절히 움직이고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기술을 잘 배우고 빠르게 능숙해지면서 이 지능의 최고 수준인 무용수, 수영선수, 기술자, 산악 등반가, 마술사 등이 될 수 있다(김옥희, 1999).

(3) 논리수학지능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은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추론을 잘하는 능력을 말한다. 모든 문화권의 모든 사람은 논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칙, 사물, 명제의 관계나 문제들을 해결한다. 서구에서는 논리수학지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잘 준비된 여러 지능 중의 하나이지 다른 지능보다 더 뛰어나거나 다른 것을 압도할 만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숫자관계나 개념을 이해하는 수 능력은 우반구에서, 수학의 부호를 읽고 만드는 능력은 좌반구에서 통제한다고 하지만, 논리수학지능은 많은 수의 신경기관에서 통제하는 지적 능력이다. 논리수학지능에는 논리 수학적 기억력이나 논리 수학적 창의성 그리고 과학능력과 수학능력 등이 포함된다(Gardner, 1999). 이러한 능력의 발달

과정은 Piaget의 발달단계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논리수학 지능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의 수준에 도달한다. 이 지능에서 뛰어나면 수학자나 과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정분석가, 과학자, 회계사, 기술자 등이 될 수 있다(정태희, 1998).

(4) 공간지능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은 시각, 공간적 세계를 정확히 지각하고 그 지각한 내용을 머리 속에서 변형, 회전시켜 볼 수 있는 상징체계를 숙달하고, 창조하며,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으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어적 지능만큼 중요하게 취급되고 독특한 영역으로 다루어지며 연구되어 왔다. 시각세계를 정확히 지각할 수 있고, 처음의 지각에 의하여 변형이나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한 물리적 자극이 없어도 시각적 경험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조덕제, 2001). 아기가 처음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획득하게 되고 점차 전체적으로 공간적 관계를 설명하게 되면서 아동의 공간적 지능은 더욱 발달하게 된다. 그러한 능력을 잘 발전시켜 공간적 정보의 도표적 형상을 만들어 내고 형체나 물체를 지각하고 변화나 변형을 알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면 미술가, 조각가, 외과의사, 항해사, 실내 장식가 등이 될 수 있다(김옥희, 1999).

(5) 언어지능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은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언어의 올바른 사용을 분석하고 기억하는 능력, 사물을 표현하고 유머 감각을 나타내는 능력, 사실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능력, 단어의 구문과 의미를 이해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확신시키는 능력 등을 일컫는다(정태희, 1998). 모든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언어이며 누구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 지능은 보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지능이 높으면 연설가, 재담가, 정치가, 시인, 극작가, 편집자, 기자 등이 될 수 있다(육미수, 2001).

(6) 대인관계지능

대인관계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그에 관한 새로운 상징체계를 만들어내는 능력, 각 개인들 간의 차이점을 알아차리거나 그들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의 기분이나 성향, 동기, 의도를 알아내는 능력이 이에 포함된다(Armstrong, 1994). 대인관계지능의 발달과정을 보면, 생후 2개월에는 다른 사람의 형태와 얼굴 등을 구분하고 1세에는 낯가림을 하면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2~5세에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시연해 볼 수 있게 되고, 학령기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기술, 사회적 지식을 또래집단을 통해 배운다. 이 때 다른 사람의 단순한 의도와 생각을 알게 된다. 아동기 중기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동기를 알게 되고, 위계질서와 타인의 숨겨진 욕망, 걱정, 동기에 더욱 예민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세분화되며, 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의 도덕원리인 정의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대인관계지능은 다른 지능과 독립된 하나의 지능이다. 이 부분이 손상될 때, 다른 지적 능력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지만 대인관계를 맺는 성격적 측면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대인관계지능이 발달되면 카운슬러, 교사, 심리치료사, 정치가, 종교지도자 등이 될 수 있다(정태희, 1998).

(7) 개인이해지능

개인이해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은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 집중된다.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내고,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탐색이나 지식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내적 성찰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의견 표현이 강한 편이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보다 집단에서 떨어져 혼자서 사색하며 꿈을 키워나가거나 일을 성취하는 것을 좋아한다. 개인이해 지능은 매우 사적인 영역으로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Armstrong, 1994). 갓난 아기가 모든 것을 막연한 '흥분'으로 느끼다가, 고통과 쾌락의 느낌을 구분하게 되고, 대뇌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소설가, 정신적 상담가, 현명한 조언가나 철학자 등이 될 수 있다(김옥희, 1999).

(8) 자연주의지능

자연주의지능(naturalist intelligence)은 다양한 식물, 광물, 동물을 분류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차나 신발 같은 문화적 산물이나 인공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에 속한다. 이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존재할 수 있는 동식물 연구가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 동식물 연구가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동·식물군을 비롯한 방대한 종들에 대한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놀랍게 잘 인식하고 분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 4세의 아이가 어른들보다 공룡을 더 잘 인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능력의 최고 수준으로 발달된 예로 과학자 다윈과 식물학자 린네가 대표적이며, 농화학자, 동물보호가, 천문학자, 환경운동가, 수의사 등이 자연주의 지능이 높다(정지원, 2004).

Gardner는 그가 정의하는 지능들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지능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목표 활동을 이룬다. 다중지능들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다 있되 나타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Gardner는 각 지능은 어느 정도까지는 발달시킬 수 있으며, 특히 아동기의 환경조성 즉 훈련을 통해 지능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심우엽, 1997).

다. 다중지능 선행연구

다중지능에 대한 연구는 학습양식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Gardner는 인간의 학습양식은 지능의 활용방식이라고 보았다. 달리 말해서 자연적인 학습상황에서 지능이 실제적 행동을 통해 발휘되는 방식이 학습양식인 것이다. 예를 들면, 공간지능이 매우 발달한 아동은 그리기, 삼차원적 자료, 비디오, 테이프, 그래픽이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실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그런 학습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전윤식, 강영심, 1997).

김명희와 김양분(1996)의 연구결과 학업성취나 IQ 모두 논리수학 지능 및 개인내간 지능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나머지 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하대현(1996)은 다중지능이론에서의 개인적 지능을 자기 자신의 감정에 접근하고 감정들을 구분해내고 그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들을 상징부호로 결합하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그 감정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여 개인적 지능의 이러한 감정은 정서지능 만큼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태희(1998)의 연구에서는 다중지능 이론 중 개인이해 지능에 기초한 교수-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로 하여금 협조적 관계형성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과 반성적 사고능력 발달을 촉진시

켰음을 밝히고, 개인이해 지능에 기초한 교수-학습활동의 개발은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자신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및 세상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촉진하여 인간의 정서적 능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왕경순(199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중지능과 과학학업성취도 단계분석을 위한 연구로 프로젝트 접근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업성취도를 평가 분석한 결과 일반지능에 비해 다중지능이 과학성취도 변량을 더 많이 설명했으며, 다중지능에 기초한 프로젝트 활동이 과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 활동은 독립적, 관계적 관점에서의 과학 학습 보통아, 우수아의 과학 성취도와 유의하게 나타났고, 다중지능에 기초한 프로젝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문제해결 가능성과 성향이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진(1999)의 연구에서는 다중지능 중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개인내 지능만이 IQ 및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내 지능은 IQ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내 지능이 높으면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여 삶을 잘 계획할 수 있게 되므로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육미수(2001)의 연구에서는 MI(Multiple Intelligence) 교육과정을 경험한 아동들은 기존 수업을 받은 아동들보다 인지적인 학업성취 영역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답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다양하고 예술적인 표현능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들은 7가지 지능 영역에 따른 다양한 수업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업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길호(2002)의 연구에서는 다중지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도 유의하게 높으며, 다중지능의 각 영역 중에서 언어지능이 학업성취도와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음악지능, 논리수학지능, 개인이해지능도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희(2003)의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접근법을 적용한 수업을 한 결과 전통적 접근법에 의한 수업보다 아동의 다중지능 및 다중지능의 하위 영역별 지능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다중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접근법이 아닌 프로젝트 접근법을 이용한 학습방법으로 아동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중지능의 연구는 대부분 학습양식이나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고,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중지능은 IQ처럼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어, 다중지능이 높으면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이해 지능이 높으면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여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MI(Multiple Intelligence)이론을 적용한 학습은 전통적인 수업보다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과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고 아동 개인의 효율적인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는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으므로 아동의 다중지능을 발달시켜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는 학습양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다중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3. 양육태도와 다중지능의 관계

인간의 정서 및 성격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지능 및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원영(1983)은 어머니의 애정-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의사소통능력 및 지적능력의 발달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애정적이면서 적절한 통제를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지적발달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안말애(1985)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지능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태도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지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였다.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동미(199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중 자기정서 조절 능력 및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안현지(199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특히 애정-자율적인 어머니의 아동이 비교적 높은 점수의 정서지능을 나타냈고, 적대-통제적인 어머니의 아동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김정원(2002)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지능 전반과 다양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지적, 학문적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상과 가족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지애(2003)는 어머니의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은 높아지고, 어머니의 적대적-통제적인 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는 부적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중지능 중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개인이해지능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지현(199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관심, 기대, 통제 등으로 나타난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습태도 및 학습시간, 학업성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아동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향자(2000)는 유아의 다중지능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정의 가족형태, 주거환경과 유아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인 태도일 때, 지능 간 상대적 순위에서 대부분의 지능들이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거부적인 양육태도 일 때는 낮은 순위를 보여 유아의 다중지능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조덕제(2001)는 아동이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애정 통제적 태도와 적대-통제적 태도에서 남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태도수준이 여아보다 유의한 차이가 낮았으며,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로 어머니는 남아에게 엄격한 반면에 여아에게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다중지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임은혜(2002)의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다중지능의 하위영역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숙(2002)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다중지능과 어머니의 다중지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자연주의지능은 유아의 자연주의지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나타내고, 어머니의 논리-수학적 지능은 유아의 논리-수학적 지능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다중지능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아는 논리-수학적 지능이, 여아는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음악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전선재(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다중지능 발달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성취, 개방, 친애, 자율 지향의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해 자녀의 숨겨진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영희(2004)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자녀에게 애정, 자율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남녀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남아의 경우에는 논리-수학적지능에, 여아일 경우에는 음악적 지능과 신체-운동적 지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공간적 지능과 대인관계지능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지원(2004)은 예술계 중·고등학생의 다중지능 발달 경향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예술계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중지능의 각 지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부모자신이 성숙된 감정을 갖고서 일관적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보다 나은 양육방안을 모색하며, 자녀들이 다양한 사회 속에 적응하고 훌륭한 음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의 개인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지능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아동의 학업성적과 아동의 다중지능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인간행동을 결정짓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중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써 양육태도와 다중지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A중학교와 북구에 위치한 B중학교 총 8개 학급 3학년 학생 244명(여학생 125명, 남학생 1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92부를 배부하여 265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부를 제외한 244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학생의 부모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간 정도이다.

2. 측정 도구

가. 부모 양육태도 측정 도구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Schaefer(1965)의 가설을 기초로 하여 만든 이 질문지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지로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 8가지 유형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시켰다. 4개 영역의 양육태도는 1번부터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에 관한 순으로 반복하여 문항배열이 되어 있으며 차원별로 각각 15문항 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 28개, 부정적인 문항 3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양자택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은 “그렇다”에 2점, “아니다”에 1점을 주었고,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였다. 양육태도의 각 차원마다 15점에서 최고 30점까지 가능한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검사는 Cronbach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부의 양육태도는 .60~.80, 모의 양육태도는 .56~.76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1>은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질문지 구성과 Cronbach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III-1>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질문지 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위영역	문항수	문 항 번 호	Cronbach α 계수	
			부	모
애정-적대	15	1, * 5, 9, 13, * 17, * 21, 25, * 29, * 33, 37, * 41, 45, 49, * 53, * 57	.80	.76
자율-통제	15	* 2, 6, 10, * 14, * 18, 22, * 26, * 30, * 34, 38, * 42, * 46, 50, 54, * 58	.72	.65
성취-비성취	15	3, * 7, * 11, 15, 19, 23, 27, 31, 35, * 39, * 43, * 47, 51, 55, 59	.60	.56
합리-비합리	15	* 4, 8, * 12, 16, * 20, * 24, * 28, * 32, 36, 40, 44, * 48, * 52, * 56, * 60	.70	.70
전 체	60		.89	.85

(* 는 역으로 채점하는 문항으로 그렇다는 1점, 아니다는 2점으로 채점.)

각 차원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부모 양육태도 차원의 특징

하 위 영역		특 징
애성 차원	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용적이며 헌신적이다. 2. 자녀와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낸다. 3.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4. 자녀의 기분을 헤아려 준다.
	적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의 일에 무관심, 소홀한 편이다. 2. 자녀와 시간을 별로 같이 지내지 않는다. 3. 비난 및 체벌을 자주 한다. 4. 자녀의 단점을 강조한다.
자율 차원	자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의 개성 및 의견을 존중한다. 2. 지나친 제재를 하지 않는다. 3. 자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한다. 4.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도록 한다.
	통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전체적이다. 2. 엄격하고 제한을 많이 한다. 3. 설명이나 이유는 듣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성취 차원	성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높은 포부를 설정하도록 하고 격려한다. 2.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3. 끈기있게 집중하고 일을 마치도록 한다. 4.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성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 한다. 2. 맡은 일의 책임완수에 무관심하다. 3. 새로운 일이나 경험 및 호기심에 비협조적이다. 4. 잘못된 것을 자주 지적한다. 5. 결과만 중요시한다.
합리 차원	합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사에 이유를 중요시 여긴다. 2.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의 제시를 알게 한다. 3. 교육방법이 이상적이다. 4.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일률적이다.
	비합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유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2. 결과만 중요시 여긴다. 3. 교육에 있어서 감정적이다. 4.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같은 일이라도 다르게 처리한다.

출처 : 강희진(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3-34.

나. 다중지능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Shearer(1995)가 14세에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자기보고식 다중지능검사인 HAPI(Hillside Assessment of Perceived Intelligence)를 수정·보완해 다중지능 측정을 위해 개발한 MIDAS(Multiple Intelligence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s, 다중지능 발달 평가 척도)를 김현진(1999)이 한국어로 번안한 K-MIDAS를 사용하였다. Shearer(1995)의 MIDAS는 학생의 수행능력을 관찰하는 평가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 또는 잘 아는 피조사자에 의해서 다중지능을 평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MIDAS는 표준지능과 적성검사로부터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지적 발달, 지적 활동과 성향, 흥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김명희, 김양분, 1996).

현재 2종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14~19세를 위한 MIDAS와 어린이를 위한 MIDAS-KIDS가 있다. 14~19세를 위한 MIDAS의 문항구성은 8개 영역(언어,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음악, 대인관계, 개인이해, 자연주의지능)으로 실존지능은 제외되어 있다. 문항은 총 1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일한 문항 속에 두 세 가지 지능이 중복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된 문항을 총 141문항이다. 본 검사에서의 각 지능별 신뢰도 계수는 .82~.92로 상당히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MIDAS에서의 다중지능의 각 지능과 문항구성은 <표 III 3>과 같다.

<표 III-3> K-MIDAS의 문항구성과 신뢰도계수

다중지능	문 항 번 호*	활용문항수 (순수문항수)	Cronbach α 계수
음악지능	1~14, 63	15(14)	.89
신체운동지능	15~27	13(13)	.82
논리수학지능	28~44, 47, 52, 65	20(17)	.87
공간지능	32 , 45~59	16(15)	.83
언어지능	60~79	20(20)	.92
대인관계지능	66 , 80~97	19(18)	.90
개인이해지능	29~31, 35, 37, 43, 48~50, 52, 68~70, 80, 87, 89, 98~106	25(9)	.88
자연주의지능	107~119	13(13)	.87
총계		141(119)	.97

(* **진하게** 표시된 문항은 다른 지능에 속하는 문항을 중복해서 사용한 문항임)

출처 : 김현진(1999). 다중지능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 23.

다음 표 <III-4>와 <표 III-5>에서는 다중지능의 각 지능에 대한 정의와 하위 영역의 정의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표 III-4> MIDAS에서 측정하는 다중지능과 각 하위영역

음악 지능	정의	음조, 음, 리듬, 음색 그리고 소리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민감성
	하위 영역	① 감상력 ② 악기 다루는 기술 ③ 가창력 ④ 작곡
신체 운동 지능	정의	운동 등의 목적적인 행동뿐 아니라 표현적 목적을 위해 매우 구별되고 기술적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
	하위 영역	① 운동력 ② 손작업 및 표현적 활동
논리 수학 지능	정의	사물에 대한 행위를 인식하는 것. 그런 행위들 사이의 관계나 실재 가능한 행위에 대한 진술, 명제들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
	하위 영역	① 학교수학 ② 일상수학 ③ 전략게임 ④ 일상적 문제의 논리적 해결 ⑤ 과학적 사고
공간 지능	정의	시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자신의 최초의 시각에 대해 변화, 수정을 가할 수 있고 적절한 물리적 자극이 없이도 자신의 시각적 경험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하위 영역	① 공간 인식력 ② 공간을 통한 예술작업 ③ 대상을 통한 공간적 활동
언어 지능	정의	어순, 단어와 소리, 말의 리듬과 어형변화의 순서, 언어의 다양한 기능, 구문론, 음운론, 의미론적 기능에 대한 민감성
	하위 영역	① 언어적 민감성 ② 대인적 언어력 ③ 작문·학문적 언어력
대인 관계 지능	정의	다른 사람의 얼굴, 목소리, 사람됨을 인식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하위 영역	① 사회적 리더쉽 ② 사회적 민감성 ③ 대인관련활동
개인 이해 지능	정의	자신의 느낌, 욕구, 두려움, 자신의 개인사와 자신의 강점과 약점, 미래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인식하는 것
	하위 영역	① 자기자신에 대한 지식·효능감 ② 계산과 메타인지 ③ 공간적 문제해결 ④ 자아/타아 문제해결
자연 주의 지능	정의	자연세계에 대한 인식. 식물이나 동물을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 과학적 연구나 활동
	하위 영역	① 식물에 대한 관심 ② 동물에 대한 관심

출처 : 김현진(1999). 다중지능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표 III-5> MIDAS에서 측정하는 다중지능 하위영역의 정의

음악 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상력 -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흥미를 가짐 ② 악기 다루는 기술 -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 ③ 가창력 - 가락에 맞고 조화롭게 노래할 수 있는 능력 ④ 작곡 - 노래나 시를 만들고, 마음속으로 곡조를 만드는 능력
신체 운동 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동력 - 스포츠나 다른 신체활동을 좋아하고 능력 있음 ② 손작업 및 표현식 활동 - 대상을 다룰 때 손을 기술적으로 사용하고 신체를 통한 표현 활동을 좋아하고 잘함
논리 수학 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수학 -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잘함 ② 일상수학 -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효과적으로 잘함 ③ 전략게임 - 기술과 전략을 사용하는 게임을 좋아함 ④ 일상적 문제의 논리적 해결 -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⑤ 과학적 사고 - 과학과 과학적 형태의 탐구에 흥미와 관심이 있음
공간 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간 인식력 - 공간 속에서 대상물을 이동시키는 문제나 공간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② 공간을 통한 예술작업 - 미적인 것이나 디자인이 중요한 직업이나 프로젝트 ③ 대상을 통한 공간적 활동 - 사물들을 구축, 배열, 장식 또는 고치는 능력
언어 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어적 민감성 - 의사소통과 표현을 위해서 언어내 주의를 기울이고 언어로 잘 표현함 ② 대인적 언어력 - 학교, 직장, 가정, 동료간에 대인간 협상이나 설득을 위하여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함 ③ 작문·학문적 언어력 - 보고서, 편지, 소설을 쓰는데 단어를 잘 사용함.
대인 관계 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적 리더십 -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칠 수 있음 ② 사회적 민감성 -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알고 관심을 가짐 ③ 대인관련활동 - 사람 중심적인 일에 흥미와 기술이 있음
개인 이해 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기자신에 대한 인식·효능감 - 자신의 강점과 욕구에 대한 인식,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 ② 계산과 메타인지 - 자신의 논리적인 추론을 이해할 수 있는 반성적 추론 ③ 공간적 문제해결 - 자아나 대상물을 공간 속에서 이동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아인식, 자신의 정신적 심상에 대한 인식 ④ 자아/타아 문제해결 - 사회적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아에 대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연 주의 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물에 대한 관심 - 식물을 이해하고 돌보고 키우는 것을 좋아하고 잘함 ② 동물에 대한 관심 - 다양한 동물의 특성이나 행동에 관심이 많고 돌보는 능력

출처 : 김현진(1999). 다중지능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다중지능을 조사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와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 SPSS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다중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로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다중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과 양육태도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증(t test)을 사용하였고, 양육태도와 다중지능의 각 지능간에 어떤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통한 상관 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이 $p < .05$ 일 때 의미있는 것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가.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점수가 남녀 중학생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남녀 중학생간의 차이

변인	구분	<i>n</i>	<i>M</i>	<i>SD</i>	<i>t</i>
부애성	남	119	24.83	3.43	-4.430***
	여	125	26.62	2.82	
부자율	남	119	24.69	3.11	-4.297***
	여	125	26.26	2.61	
부성취	남	119	25.18	2.46	-1.384
	여	125	25.58	2.02	
부합리	남	119	25.63	3.00	-3.168**
	여	125	26.75	2.49	

** $p < .01$, *** $p < .001$

<표 IV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 부애정($t_{(211)}=-4.430, p<.001$), 부자율($t_{(211)}=-4.297, p<.001$), 부합리($t_{(211)}= 3.168, p<.01$) 에서 남녀 중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자 중학생들이 남자 중학생들보다 아버지의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점수가 남녀 중학생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 2>와 같다.

<표 IV-2>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남녀 중학생간의 차이

변 인	구분	<i>n</i>	<i>M</i>	<i>SD</i>	<i>t</i>
모애정	남	119	26.20	2.71	-2.412*
	여	125	27.07	2.93	
모자율	남	119	24.55	2.66	-2.148*
	여	125	25.31	2.84	
모성취	남	119	25.44	2.30	.358
	여	125	25.34	2.11	
모합리	남	119	25.84	2.56	.984
	여	125	26.19	2.99	

* $p<.05$

<표 IV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의 하위척도 중에서 모애정($t_{(244)}=-2.412, p<.05$)과 모자율($t_{(244)}=-2.148, p<.05$)에서 남녀 중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모애정과 모자율의 경우에는 여자 중학생들이 남자 중학생들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모성취와 모합리는 남녀 중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중지능과 남녀 중학생간의 차이

다중지능 점수가 남녀 중학생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다중지능과 남녀 중학생간의 차이

변인	구분	n	M	SD	t
음악지능	남	119	45.79	10.93	-5.017***
	여	125	52.76	10.76	
신체운동지능	남	119	36.58	8.45	.563
	여	125	35.94	9.38	
논리수학지능	남	119	54.26	12.55	.138
	여	125	54.05	11.43	
공간지능	남	119	36.93	9.53	-3.306**
	여	125	41.05	9.89	
언어지능	남	119	49.87	12.22	-4.187***
	여	125	56.72	13.30	
대인관계지능	남	119	59.90	12.31	-3.449**
	여	125	65.18	11.62	
개인이해지능	남	119	74.79	14.25	-1.219
	여	125	76.98	13.75	
자연주의지능	남	119	31.83	10.35	-2.311*
	여	125	34.79	9.65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지능의 남녀 차이에서 음악지능($t_{(244)} = -5.017$, $p < .001$), 공간지능($t_{(244)} = -3.306$, $p < .01$), 언어지능($t_{(244)} = -4.187$, $p < .001$), 대인관계지능($t_{(244)} = -3.449$, $p < .01$), 자연주의지능($t_{(244)} = -2.311$, $p < .05$)에서 남녀 중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자 중학생들이 남자 중학생보다 음악지능과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연주의지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개인이해지능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의 평균이 높았으며, 신체운동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의 관계

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학생들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n=244)

	음악 지능	신체운 동지능	논리수 학지능	공간 지능	언어 지능	대인관 계지능	개인이 해지능	자연주 의지능
부애정	.205**	.056	.075	.128*	.280***	.301***	.199**	.072
부자율	.132*	.069	.098	.188**	.173**	.151*	.165*	.037
부성취	.250***	.195**	.213**	.257***	.305***	.266***	.272***	.190**
부합리	.174**	.050	.089	.100	.197**	.225***	.166**	.064

* $p < .05$, ** $p < .01$, *** $p < .001$

<표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애정과 음악지능($r = .205, p < .01$), 공간지능($r = .128, p < .05$), 언어지능($r = .280, p < .001$), 대인관계지능($r = .301, p < .001$) 및 개인이해지능($r = .199, p < .01$)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애정은 대인관계지능과 가장 상관이 높았다.

아버지의 자율과는 음악지능($r = .132, p < .05$), 공간지능($r = .188, p < .01$), 언어지능($r = .173, p < .01$), 대인관계지능($r = .151, p < .05$) 및 개인이해지능($r = .165, p < .05$)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 공간지능과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성취와는 음악지능($r=.250, p<.001$), 신체운동지능($r=.195, p<.01$), 논리수학지능($r=.213, p<.01$), 공간지능($r=.257, p<.001$), 언어지능($r=.305, p<.001$), 대인관계지능($r=.266, p<.001$), 개인이해지능($r=.272, p<.001$), 자연주의지능($r=.190, p<.01$)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지능과 가장 상관이 높았다.

아버지의 합리와는 음악지능($r=.174, p<.01$), 언어지능($r=.197, p<.01$), 대인관계지능($r=.225, p<.001$) 및 개인이해지능($r=.166,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은 중학생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들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자연주의지능은 부정취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 태도 중에서는 아버지의 성취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하여 다중지능과 높은 상관이 나타났고, 다중지능 중에서는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n=244)

	음악 지능	신체운 동지능	논리수 학지능	공간 지능	언어 지능	대인관 계지능	개인이 해지능	자연주 의지능
모애정	.138*	.077	.131*	.077	.236***	.278***	.230***	.061
모자율	.062	.047	.038	.113	.034	.100	.102	-.089
모성취	.214**	.286***	.314***	.266***	.273***	.309***	.371***	.250***
모합리	.099	.048	.117	.051	.122	.231***	.154*	-.028

* $p < .05$, ** $p < .01$, *** $p < .001$

<표 I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애정과는 음악지능($r=.138, p<.05$), 논리수학지능($r=.131, p<.05$), 언어지능($r=.236, p<.001$), 대인관계지능($r=.278, p<.001$) 및 개인이해지능($r=.230,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지능과 상관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자율과는 다중지능의 하위요인 어느 것과도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성취와는 음악지능($r=.214, p<.01$), 신체운동지능($r=.286, p<.001$), 논리수학지능($r=.314, p<.001$), 공간지능($r=.266, p<.001$), 언어지능($r=.273, p<.001$), 대인관계지능($r=.309, p<.001$), 개인이해지능($r=.371, p<.001$), 자연주의지능($r=.250,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해지능이 가장 상관이 높았다.

어머니의 합리와는 대인관계지능($r=.231, p<.001$)과 개인이해지능($r=.154, p<.05$)만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대인관계지능과 개인이해지능은 중학생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들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자연주의지능은 어머니의 성취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지능과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은 모애정, 모성취에서만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에서도 어머니의 성취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하여 다중지능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다중지능 중에서는 대인관계지능과 개인이해지능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상관이 높았다.

4.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가.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자 중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남자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 6>과 같다.

<표 IV-6> 부모의 양육태도와 남중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n=119)

	음악 지능	신체운 동지능	논리수 학지능	공간 지능	언어 지능	대인관 계지능	개인이 해지능	자연주 의지능
부애정	.097	.017	.130	.122	.257**	.243**	.234*	.121
부자율	-.050	.093	.178	.150	.108	.119	.154	.037
부성취	.138	.060	.200*	.241**	.282**	.226*	.289**	.157
부합리	.067	.036	.111	.086	.124	.131	.162	.071
모애정	.161	.172	.235*	.180	.264**	.289**	.311**	.191*
모자율	-.092	-.057	-.037	-.019	-.125	.061	-.030	-.083
모성취	.152	.170	.277**	.255**	.249**	.299**	.354***	.251**
모합리	.135	.066	.157	.082	.120	.200*	.165	.026

* $p < .05$, ** $p < .01$, *** $p < .001$

<표 IV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애정과 언어지능($r=.257, p<.01$), 대인관계 지능($r=.243, p<.01$), 개인이해지능($r=.234,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자율과 부합리는 다중지능의 어휘 하위요인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중학생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에서 부성취와 다중지능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중지능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논리수학지능($r=.200, p<.05$), 공간지능($r=.241, p<.01$), 언어지능($r=.282, p<.01$), 대인관계지능($r=.226, p<.05$) 및 개인이해지능($r=.289,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경우 보다 남중생의 다중지능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모애정의 경우 논리수학지능($r=.235, p<.05$), 언어지능($r=.264, p<.01$), 대인관계지능($r=.289, p<.01$), 개인이해지능($r=.311, p<.01$) 및 자연주의지능($r=.191, p<.05$)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모성취의 경우는 어머니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에서 다중지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개인이해지능($r=.354, p<.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리수학지능($r=.277, p<.01$), 공간지능($r=.255, p<.01$), 언어지능($r=.249, p<.01$), 대인관계지능($r=.299, p<.01$), 및 자연주의지능($r=.251, p<.01$)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합리의 경우 대인관계지능($r=.200, p<.05$)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중지능의 다른 하위요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학생의 다중지능 중에서는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음악지능과 신체운동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므로 남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성취적으로 지각할수록 다중지능이 높아진다고 여겨진다.

남자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지능 검사의 하위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변인 전체의 설명력(R^2)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예측변인들이 <표 IV-7>에 나타나있다.

<표 IV-7> 남중생의 다중지능 하위척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부모 양육태도의 회귀모형

종속변인	유의한 예측변인	β	t	p	F	R^2
논리수학 지능	모성취	.271	3.041	.003	9.251**	.073
	모자율	-.306	-3.231	.002	8.250**	.066
언어지능	모애정	.295	2.769	.007	8.069***	.174
	부성취	.206	2.087	.039		
대인관계 지능	모성취	.299	3.383	.001	11.445**	.089
개인이해 지능	모성취	.354	4.094	.000	16.760***	.125
자연주의 지능	모성취	.251	2.806	.006	7.871**	.063

** $p < .01$, *** $p < .001$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변인들 중에서 논리수학지능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성취($\beta=.271, t=3.041, p<.01$)로 설명력은 7.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성취($\beta=.257, t=2.872, p<.01$)로 설명력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지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모자율($\beta=-.306, t=3.231, p<.01$), 모애정($\beta=.295, t=2.769, p<.01$) 및 부성취($\beta=.206, t=2.087, p<.05$)였으며 설명력은 17.4%였다.

대인관계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성취($\beta=.299, t=3.383, p<.01$)로 설명력은 8.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해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성취($\beta=.354, t=4.094, p<.001$)로 설명력은 12.5%였다.

자연주의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성취($\beta=.251, t=2.806, p<.01$)로 설명력은 6.3%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남자 중학생들의 다중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 요인들 중에서 어머니의 요인들이 아버지의 요인들보다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며, 특히 어머니의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남자 중학생들의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주의지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중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다중지능이 잘 발달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언어지능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언어지능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중지능의 각 하위요인들 중에서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가장 잘 설명되는 요인은 언어지능이었다. 즉 언어지능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능요인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자 중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여자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부모의 양육태도와 여중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n=125)

	음악 지능	신체운 동지능	논리수 학지능	공간 지능	언어 지능	대인관 계지능	개인이 해지능	자연주 의지능
부애정	.174	.123	.012	.044	.196*	.276**	.128	-.076
부자율	.175	.071	.007	.150	.118	.075	.147	-.051
부성취	.351***	.349***	.232**	.256**	.311***	.290**	.242**	.209*
부합리	.185*	.084	.067	.049	.187*	.263**	.146	-.009
모애정	.038	.013	.034	-.058	.158	.222*	.141	-.104
모자율	.124	.139	.113	.188*	.098	.085	.206*	-.138
모성취	.317***	.395***	.356***	.295***	.330***	.348***	.397***	.261**
모합리	.043	.039	.084	.008	.102	.245**	.139	-.093

* $p < .05$, ** $p < .01$, *** $p < .001$

<표 IV-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애정과 언어 지능($r=.196$, $p < .05$), 대인관계지능($r=.276$,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자율은 다중지능의 어느 하위요인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합리는 음악지능($r=.185$, $p < .05$), 언어지능($r=.187$, $p < .05$), 대인관계지능($r=.263$, $p < .01$)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중학생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에서 부성취와 다중지능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중지능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음악지능($r=.351$, $p < .001$), 신체운동지능($r=.349$, $p < .001$), 논리수학지능

($r=.232, p<.01$), 공간지능($r=.256, p<.01$), 언어지능($r=.311, p<.001$), 대인관계지능($r=.290, p<.01$), 개인이해지능($r=.242, p<.01$) 및 자연주의지능($r=.209, p<.05$)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경우 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모애정의 경우 대인관계지능($r=.222, p<.05$)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율은 공간지능($r=.188, p<.05$), 개인이해지능($r=.206,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취의 경우 어머니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에서 다중지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성취는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이해지능($r=.397, p<.001$), 신체운동지능($r=.395, p<.001$), 논리수학지능($r=.356, p<.001$), 대인관계지능($r=.348, p<.001$), 언어지능($r=.330, p<.001$), 음악지능($r=.317, p<.001$)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합리의 경우 대인관계지능($r=.245,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중지능의 다른 하위요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학생의 경우에도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중지능 중에서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여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적으로 지각할수록 다중지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의 경우와 다른 점은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차원이 고르게 다중지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음악지능과 신체운동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논리수학지능, 자연주의지능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학생들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지능 검사의 하위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변인 전체의 설명력(R^2)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예측변인들이 <표 IV-9>에 나타나있다.

<표 IV-9> 여중생의 다중지능 하위척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부모 양육태도의 회귀모형

종속변인	유의한 예측변인	β	t	p	F	R^2
음악지능	부성취	.351	4.153	.000	17.250***	.123
신체운동 지능	모성취	.395	4.773	.000	22.784***	.156
논리수학 지능	모성취	.346	4.091	.000	16.739***	.120
	모성취	.353	3.909	.000		
공간지능	모애정	-.335	-3.442	.001	8.057***	.167
	모자율	.251	2.776	.006		
언어지능	모성취	.330	3.876	.000	15.025***	.102
대인관계 지능	모성취	.287	3.234	.002	10.697***	.149
	부애정	.179	2.013	.046		
개인이해 지능	모성취	.397	4.792	.000	22.967***	.157
자연주의 지능	모성취	.261	3.002	.003	9.012**	.068

** $p < .01$, *** $p < .001$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변인들 중에서 여중생의 음악지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성취($\beta = .351$, $t = 4.153$, $p < .001$)로 설

명력은 12.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운동지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성취($\beta=.395, t=4.773, p<.001$)로 설명력은 15.6%로 높게 나타났다. 논리수학지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모성취($\beta=.346, t=4.091, p<.001$)로 설명력은 1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성취($\beta=.353, t=3.909, p<.001$), 모애정($\beta=.335, t=3.442, p<.01$) 및 모자율($\beta=.251, t=2.776, p<.01$)로서 설명력은 16.7%로 높게 나타났다. 언어지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성취($\beta=.330, t=3.876, p<.001$)였으며 설명력은 10.2%였다. 대인관계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성취($\beta=.287, t=3.234, p<.01$)와 부애정($\beta=.179, t=2.013, p<.05$)으로 설명력은 14.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이해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성취($\beta=.397, t=4.792, p<.001$)였으며 설명력은 15.7%로 높게 나타났다. 자연주의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성취($\beta=.261, t=3.002, p<.01$)였으며 설명력은 6.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부모양육 요인들 중에서 어머니의 요인들이 여자 중학생들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의 요인들이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고 생각되며, 특히 어머니의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여자 중학생들의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주의지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버지의 성취적인 양육태도는 여자 중학생들의 음악지능에, 아버지의 애정은 여자 중학생들의 대인관계지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중지능의 각 하위요인들 중에서 여자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가장 잘 설명되는 요인은 공간지능이었다. 즉 공간지능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능요인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통계적으로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다중지능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의 관계를 규명해 봄으로써 중학생의 다중지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중지능 발달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교수 학습 모형 개발과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적·정서적·행동 발달을 위한 기초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자녀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과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한 측면만을 다중지능과 연결시켜서 연구(김향자, 2000; 임은혜, 2002; 조덕제, 2001; 최영희, 2004)하거나 부모를 함께 묶어서 연구(정지원, 2004)하거나 연구대상이 유아나 초등학생인 경우(임은혜, 2002; 전선재, 2003; 조혜진, 2001; 최영희, 2004)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의 관계를 성별로 나누어 분석했다는 데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남녀 중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애정·적대, 자율 통제, 합리-비합리의 차원에서 남녀 중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도 남녀 중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대, 자율 통제 차원만 남녀 중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들이 양육태도의 모든 차원에서 남아

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적대·통제적으로 지각한다는 장현영(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별에 따라 자율차원과 합리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정지원(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다중지능은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연구에서 다중지능의 남녀 중학생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음악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연주의지능에서 남녀중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운동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김병희와 김양분(1996), 류숙희(1996), 김향자(2000), 조혜진(2001), 임은혜(2002), 최민자(2003), 정지원(2004), 최영희(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다중지능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한 연구들(송경희, 2002; 조덕제, 2001; 조선옥, 1999)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생의 다중지능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김향자, 2000; 임은혜, 2002; 전선재, 2003; 조덕제, 2001)과 일치하며, 예술계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중지능의 각 지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지만 상관의 강도는 대체로 약하다는 정지원(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남녀 아동의 다중지능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최영희(200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애정-자율차원과는 음악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율-통제차원과는 음악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버지의 성취 비성취차원과는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합리-비합리차원과는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대차원과는 음악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다중지능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김향자, 2000; 송경희, 2002)과는 일치하는 것이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율-통제차원과는 다중지능의 하위요인 어느 것과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성취 비성취차원과는 8개 영역 다중지능 하위요인 모두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차원과는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만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연구들(임은혜, 2002; 최영희, 2004)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중학생의 다중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취 비성취차원의 양육태도가 다른 차원의 양육태도에 비해 다중지능과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하위요인들 중 성취가 대부분의 다중지능들과 관계가 있고, 공간적 지능, 언어적 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최윤진(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최정민(2001)의 연구에서도 개인이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학업성취도와 가장 관계가 높으며 다른 지능들도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실은 성취를 강조하는 가정환경

분위기와 다중지능들과 관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므로 중학생의 다중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성취감을 갖게 해주는 양육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자 중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차원이 다중지능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애정-적대차원과는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자율-통제차원과 합리-비합리차원은 다중지능의 어느 하위요인과의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경우보다 남자중학생의 다중지능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성취-비성취차원이 다중지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주의지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애정-적대차원과는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주의지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어머니의 자율-통제차원과는 다중지능의 각 하위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합리-비합리차원과는 대인관계지능만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자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중지능 중에서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음악지능과 신체운동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일 경우 논리-수학적 지능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성별에 관계없이 공간적 지능과 대인관계지능에 어머

니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준다는 최영희(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남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남학생일 경우에는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주의지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차원이고, 언어지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자율 통제차원, 어머니의 애정·적대차원, 아버지의 성취·비성취차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으며, 언어지능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능요인으로 생각된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자중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경우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차원이 다중지능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8개 지능 모두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의 애정·적대차원과는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합리·비합리차원과는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이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율·통제차원과는 다중지능의 어느 하위요인과의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자율·통제차원과 다중지능의 하위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양육태도의 각 차원 중에서 자율차원과 정의적 특성과의 상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녀들이 부모의 '자율 지향적인 태도'를 자녀의 개성, 의견, 권리를 존중하여 지나친 감독과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처리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하는 양육태도

로 지각하기보다는 ‘방임’이나 ‘무관심’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해석한 민숙정(1989)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여학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성취-비성취차원이 다중지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모든 지능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대차원과 합리-비합리차원에서는 대인관계지능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율-통제차원과는 공간지능과 개인이해지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자중학생의 경우에도 남자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중지능 중에서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관계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임은혜(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여아일 경우 음악적 지능과 논리-수학 지능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성별에 관계없이 공간적 지능과 대인관계지능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최영희(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여학생일 경우에는 음악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의 성취-비성취차원이며,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 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주의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차원이었으며, 대인관계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애정-비성취차원과 아버지의 애정-적대차원이었다. 공간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차원과 어머니의 애정-적대차원, 어머니의 자율-통제차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요인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 요인보다 여중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어머니의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여중생의 음악지능을 제외한 나머지 지능인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

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주의지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성취적인 양육태도는 여중생의 음악지능에, 아버지의 애정은 여중생의 대인관계지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지능의 각 하위요인들 중에서 여중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공간지능이었다. 이는 공간적 지능과 언어적 지능이 심리적 가정환경 분위기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다는 최윤진(200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중학생의 다중지능 발달에 부모의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중학생의 다중지능 육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다중지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자료를 얻어 다중지능 육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의 관계를 밝혀봄으로써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중지능은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녀 중학생 244명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지각검사와 다중지능검사를 하여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를 사용하여 t 검증, Pearson 상관계수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다중지능은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운동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을 제외한 나머지 지능은 여중생이 남중생보다 높았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남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대인관계지능과 개인이해지능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성취-비성취차원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차원의 양육태도가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다중지능과 상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장 상관이 많은 다중지능은 대인관계지능이었다.

넷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먼저 남자 중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차원이 다중지능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애정차원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경우보다 남자중학생의 다중지능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성취-비성취차원이 다중지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다음이 어머니의 애정차원이었다.

남자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중지능 중에서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음악지능과 신체운동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남자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남중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언어지능이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자중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경우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성취 비성취차원과, 어머니의 성취 비성취차원은 모든 다중지능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아버지의 애정 적대차원과 어머니의 자율 통제차원이었다. 아버지의 자율 통제차원과는 다중지능의 어느 하위요인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중학생의 경우에도 남자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중지능 중에서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였다. 여자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능은 공간지능이었다.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밝혀 보는데 있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여중생 자녀보다는 남중생 자녀에게 엄격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최초이자 평생의 교육자로

서 부모는 자녀의 지적·정서적·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부모 자신이 성숙된 감정을 갖고서 일관된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보다 나은 양육 방안을 모색하며, 자녀들이 다양한 사회 속에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생의 다중지능은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남녀 중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다중지능의 하위영역은 음악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연주의지능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남녀 중학생의 다중지능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남중생보다 여중생의 다중지능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 양육태도와 상관이 높은 지능은 대인관계지능과 언어지능이었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 성취적인 자녀가 현대사회에서 보다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넷째, 다중지능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성취적인 양육태도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생의 다중지능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지능 이론은 학생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여 계발해 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교육목표인 만큼 부모도 자녀에게 성취, 애정, 자율, 합리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해 자녀의 숨겨진 다양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제언

진술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지능 검사에 있어서 측정의 편의를 위해 지필 검사를 통해 측정하였으나, 이러한 측정도구 만으로 다중지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찰과 수행평가를 통해 다중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잘 판단하여 다중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과의 관계만을 분석하였으나, 실제로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중학생이 지각하는 양육태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다중지능과 상호 작용하는 환경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로 제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중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중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다중지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다각적으로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서울 : 교육부.
- 강희진(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준희(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2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희, 김양분(1996). 중등학생의 다중지능 분석. 교육논총. 12. 151-185.
- 김성연(1981). 父母의 養育態度와 어린이의 自我概念 및 學業成績과의 相關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자(1989). 부모참여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옥희(1999). 협동그림 활동과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신(2000).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2002).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열린유아 교육연구, 7(3), 247-261.
- 김주영(2002).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과학수업활동이 초등학생의 창의성과 과학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애(2003). 유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자(2000). 유아의 다중지능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진(1999). 다중지능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류숙희(1996). 지각된 다중지능의 집단차와 IQ 및 성적과의 관계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선모(1980). 심리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민숙정(1989).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천기(2003).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수-학습 활동이 아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망나영(1995). 學生이 知覺한 父母의 養育態도와 敎科適性 및 學習態度가 學業成就에 미치는 影響.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동미(199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경희(2002). 幼兒의 多衆知能과 어머니의 子女敎育觀과의 關係 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우엽(1997). 다중지능 이론과 학교교육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5(3), 83-96.

안말애(1985).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취학전 아동의 지능발달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 지능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금희(1985). 어머니의 養育態度가 兒童의 道德的 判斷力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養育方式에 대한 아동의 知覺과 情意的 特性的

關係. 연구노트 제11권 1호.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왕경순(1998). 다중지능에 기초한 프로젝트 활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과학 학업 성취도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동미(2003).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정도와 부모교육 요구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미수(2001). 다중지능 이론 중심 통합교육과정 적용 학습이 초등학교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군자(2003).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학습활동이 '공기의 성질'에 대한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길호(2002). 중학생의 다중지능과 창의성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화(1992). 딸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딸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아(2002). 다중지능을 활용한 과학 심화학습 활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과학 탐구능력과 흥미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영(1983). 어머니의 子女教育觀 및 養育態度와 幼兒發達과의 關聯性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윤우(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현(1996).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

- 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옥(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직업가치관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혜(2002). 초등학생의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 발달특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희(2003). 프로젝트 접근법이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숙(2002). 유아의 다중지능과 어머니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7(2), 259-278.
- 장현영(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선재(2003). 父母 養育態度와 兒童의 多重知能 發達 및 創意性과의 關係.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윤식, 강영심(1997). 복합지능과 교육.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정갑순(2002). 父母-子女關係와 自己效能感, 成就動機, 學業成就間의 關係에 대한 縱斷的 分析.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대현(2003). 유아용 다중지능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200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1998). 지능과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원(2004). 예술계 중·고등학생의 다중지능 발달 경향과 부모의 양육태도

-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희(1998).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교수-학습 활동 개발 및 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황순(2001).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의 적용이 창의성, 정서지능 및 다중지능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덕제(2001).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영역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옥(1999). 초등학생의 성별, 다중지능 수준과 창의성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200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유아의 다중지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정남(2002).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인지양식 및 학습된 무력감의 차이.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광희(2001). 다중지능 미술 프로젝트를 적용한 초등학생의 공간적지능 신장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기란(2002). 유아 다중지능에 대한 부모평가 척도의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향(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정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민자(2003). 유아의 다중지능과 양육환경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진(2002). 초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다중지능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민(2001). 초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창의성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대현(1996). H. Gardner의 다지능 이론의 교육적 적용: 그 가능성과 한계. 교육심리연구, 12(1), 73-100.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rmstrong, T. (1994). *Multiple Intelligences in the classroom*.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69-208.

Fishbein, S.,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 Basic Books. 이경희 역(1993). 마음의 틀. 서울 : 문음사.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김명희 · 이경희역(1998). 다중지능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양서원.

Gardner, H. (1999). Are there additional intelligences? The case for naturalist, spiritual, and existential intelligences. In J. Kane(Ed.), *Education, Information and Transformation*, 111-131.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Hurlock, E. B. (1950).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Shearer, C. B. (1995). *The Multiple Intelligence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MIDAS) Manual*.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84-88.

<부록 1> 부모 양육태도 검사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60문항)로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평소 여러분께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에 응답한 내용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연구 자료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성심껏 응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요령

1. 다음 칸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를 하세요.
2. 부모 양육태도 검사지는 하나의 문항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각각 응답하여 주세요.
3. 가능하면 한 문제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2004년 1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오 미 경 올림

해당되는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교	학 번	성 별(√표시 바람)	
()중학교		남	()
		여	()

문항	아버지		어머니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1.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다정하게 자주 얘기를 한다.				
2.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전부 사다주신다.				
3. 아버지(어머니)는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신다.				
4.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아버지(어머니)는 싫어하시는 편이다.				
5. 아버지(어머니)는 화가 날 때, 식구들한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6. 아버지(어머니)는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7.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아버지(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냐”하고 핀잔을 잘 주신다.				
8. 아버지(어머니)는 형제들을 야단치실 때 차별하는 일이 없다.				
9.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는 편이다.				
10.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어머니)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신다.				
11.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어머니)는 “바보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12. 아버지(어머니)는 기분이 나쁠 때에는, 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시는 때가 많다.				
13. 아버지(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오락회를 열거나 노래부르기를 좋아하신다.				
14. 우리집에서는 아버지(어머니)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야단맞기 쉽다.				
15.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일 자체에 충실하라고 아버지(어머니)는 말씀하실 때가 많다.				
16. 아버지(어머니)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잘 지키신다.				

문 항	아버지		어머니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17. 큰 잘못이나 이유없이도,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꾸짖는 경우가 많다.				
18.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아버지(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19. 아버지(어머니)는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20. 아버지(어머니)는 형제 중에서 어떤 자녀를 특히 더 귀여워하고 사랑해 주신다.				
21. 아버지(어머니)는 내 말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22.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23. 일을 시킨 후에 만약 잘못하면, 아버지(어머니)는 “너에게 말긴 내가 잘못이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24. 아버지(어머니)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도, 내가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 하는 수 없이 허락해 버리신다.				
25. 내가 어떤 일로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어머니)는 함께 의논해 주신다.				
26. 아버지(어머니)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도록, 나에게 요구하거나 시킬 때가 많다.				
27. 아버지(어머니)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얘기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신다.				
28. 손님이 오셨을 때와 보통 때에, 나에게 대한 아버지(어머니)의 태도는 다를 때가 많다.				
29. 아버지(어머니)는 하찮은 일로도 바보나 멍청이 같다고 꾸중하시는 편이다.				
30.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아버지(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31. 아버지(어머니)는 하던 일은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32. 아버지(어머니)는 기분이 좋을 때에는 잘해주시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뚜렷한 이유없이 야단치시곤 한다.				

문 항	아버지		어머니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33. 아버지(어머니)는 내말이라면, 우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4. 나한테 관련된 일이라도, 아버지(어머니)의 허락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신다.				
35. 아버지(어머니)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36. 아버지(어머니)는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간에, 이치와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해야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37.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38.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일은 나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주는 편이다.				
39. 내가 어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아버지(어머니)는 엉뚱한 짓을 한다고 나무랄 때가 많다.				
40.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벌을 줄 때, 대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41.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거의 말상대를 안해 주시는 편이다.				
42.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				
43.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때면, 실수를 할까봐 걱정부터 하신다.				
44. 아버지(어머니)는 비록 어린이의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은 존중해 주는 편이다.				
45. 내가 질문을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아시는 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쓰신다.				
46. 우리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간에, 미리 아버지(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7. 아버지(어머니)는 새로운 일이나 여행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48. 아버지(어머니)는 꼭 해야할 일인데도,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내버려 두시는 편이다.				

문항	아버지		어머니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49.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아버지(어머니)는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50.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51.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여러 가지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				
52. 아버지(어머니)는 잘못하게된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할 때가 많다.				
53.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우선 화부터 내시는 편이다.				
54. 아버지(어머니)는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긴다.				
55. 아버지(어머니)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56. 아버지(어머니)는 가끔 적당하지 못한 명령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일이 많다.				
57.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58.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이것은 안돼” “저것은 하면 못쓴다”등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신다.				
59. 아버지(어머니)는 내 능력이나 힘에 좀 벅찬 일이라도, 나에게 해보라고 권장하시는 경우가 많다.				
60.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꾸중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일이 많다.				

<부록 2> 다중지능 검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다중지능 검사(119문항)로서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평수에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오직 연구 자료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성심껏 응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요령

1. 다음 칸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하는 칸에 V표시를 하세요.
2. 두 가지 이상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그에 맞추어 답하시면 됩니다.
ex) 57. 나트 게임이나 활쏘기, 볼링 같은 놀이를 잘 합니까?
→ 위와 같은 문항에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나트게임을 매우 잘한다면 '매우 그렇다'에 V표시하면 됩니다.
3. 가능하면 한 문제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2004년 1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오 미 경 올림

해당되는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교	학 번	성 별(V표시 바람)	
()중학교		남	()
		여	()

다중지능 검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렸을 때, 음악이나 음악시간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까?					
2. 악기 연주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3. 노래를 부를 때, 음정에 맞추어 부를 수 있습니까?					
4. 다른 사람과 함께 노래할 때, 화음을 맞춰 부를 수 있습니까?					
5.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악기연주나 음악서 클(예를 들어 합창반) 또는 음악과 관련된 동호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6.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듣는 편입니까?					
7. 편곡이나 작곡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8. 혼자 있을 때 손가락 장단을 맞추거나 노 래를 흥얼거린 적이 있습니까?					
9. 머리 속에서 좋아하는 가락이 자주 떠오르 니까?					
10.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 까?					
11. 노래를 부르거나 배울 때 리듬감이 있는 편입니까?					
12. 특정 악기의 소리나 특정 음악 그룹의 "음악"을 좋아합니까?					

다중지능 검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자신에게 숨겨진 음악적 재능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14. 일하거나 공부할 때 또는 쉴 때 음악을 자주 들습니까?					
15. 다른 과목보다 체육이나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과목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까?					
16. 어렸을 때,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 까?					
17. 학교에서 무용반이나 연극반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18. 체육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운동 하기에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 그렇 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9. 태권도, 수영, 테니스, 볼링 등과 같은 운동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20. 학교 수업시간 외에 다른 운동 팀에 참여 한 적이 있습니까?					
21. 평소에 운동이나 다른 신체활동을 자주 합니까?					
22. 카드 섞기나 마술을 부리는 것과 같이 손 을 사용해서 하는 활동을 잘합니까?					
23. 바느질, 모형 만들기, 비행기 날리기, 글 씨 쓰기와 같은 정교한 작업을 잘합니까?					
24. 기계 다루기나 조립 또는 요리나 조각하 는 것과 같이 손을 사용해서 하는 활동을 좋아합니까?					

다중지능 검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잘 흉내냅니까?					
26. 무용이나 체조를 잘합니까?					
27.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도구를 사용할 때 더 쉽게 배웁니까?					
28. 어렸을 때, 덧셈, 뺄셈, 곱셈과 나눗셈 같은 산수를 쉽게 배웠습니까?					
29. 산수나 수학에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0. 어려운 수학문제를 잘 푼니까?					
31. 과학을 공부하거나 과학 문제를 푸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2. 장기나 바둑을 잘 합니까?					
33. 카드놀이나 퍼즐게임을 잘 합니까?					
34. 십자말풀이나 낱말맞추기와 같은 게임을 자주 합니까?					
35. 용돈 기입장을 쓰는 등 짜임새 있게 용돈을 관리하는 편입니까?					
36. 전화번호나 주소에 나오는 숫자들을 잘 기억합니까?					
37. 암산을 잘 합니까?					
38. 사물이나 주변 일에 호기심이 많아서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까?					

다중지능 검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9. 집안문제 및 장래의 진로, 인생설계와 관련된 장기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잘 생각해 냈습니까?					
40. 물고기, 동물, 식물 또는 별이나 행성 같은 자연계나 자연현상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41. 골동품, 우표, 야구 등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 관련된 물건이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까?					
42. 계산이 많이 필요한 일이나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일을 잘합니까?					
43. 운동경기의 점수를 매기거나 예산을 짜는 것과 같이 숫자를 다루는 일을 좋아합니까?					
44. 상식이 풍부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계획하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일을 잘합니까?					
45. 어렸을 때 종종 블록쌓기나 구슬·공기놀이, 줄넘기 등을 하면서 놀았습니까?					
46. 기계설계, 머리손질, 목공예, 예술적인 활동과 같은 활동을 잘합니까?					
47. 방을 꾸미거나 정돈을 하는 일, 가구를 배치하는 일을 잘합니까?					
48. 빈 공간에 책상이나 가구를 배치할 때 공간 크기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까?					
49.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잘 찾습니까?					

다중지능 검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0. 지도를 보면 찾고자 하는 길을 잘 찾을 수 있습니까?					
51.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과 같은 기계나 가구를 잘 고칩니까?					
52. 장난감, 퍼즐, 전자제품들을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까?					
53. 바느질, 목공일, 뜨개질 같은 일을 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까?					
54. 미술시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림을 그립니까?					
55. 장식하기, 정원 가꾸기, 꽃꽂이에 남다른 재주가 있습니까?					
56. 낯선 곳에서도 방향감각이 있습니까?					
57. 다트게임이나 활쏘기, 볼링 같은 놀이를 잘 합니까?					
58. 당신의 생각을 종종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스케치를 해가며 설명하는 편입니까?					
59.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거나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까?					
60. 영화나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61. 사람이나 사물에게 재미있는 별명을 지어주는 것을 좋아합니까?					
62. 말할 때, 다양한 어휘나 문구를 사용하십니까?					

다중지능 검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63. 이야기를 만들거나 시나 노랫말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64.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설득력 있게 잘 말하는 편입니까?					
65. 사람을 다루거나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일을 잘 합니까?					
66. 사람들을 설득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67.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68. 다른 사람들을 다루거나 감독하는 일을 잘 합니까?					
69. 뉴스, 종교, 스포츠, 또는 가정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70.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71. 단어의 올바른 의미나 사용법을 알기 위해 사전을 찾거나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72. 말을 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말 해보라"는 요청을 받는 적이 있습니까?					
73. 다른 사람의 말투나 특유한 언어습관을 잘 흉내내습니까?					
74. 독후감이나 감상문 등 쓰기 과제를 잘 합니까?					

다중지능 검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5. 편지를 잘 쓸 수 있습니까?					
76. 읽기를 잘하거나 국어 성적이 좋습니까?					
77. 해야 할 일을 메모해 두는 편입니까?					
78. 어휘력이 풍부합니까?					
79. 정확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편입니까?					
80. 한번 사귀 친구와 오랫동안 잘 지내는 편입니까?					
81. 가족이나 친구 사이를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잘 합니까?					
82.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지도자'적 역할(예를 들어 반장이나 실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83. 씨클이나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84. 다른 사람의 감정, 희망, 요구를 쉽게 이해하는 편입니까?					
85. 아픈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 또는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86. 친구나 가족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거나 조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다중지능 검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7. 다른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편입니까?					
88.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지를 잘 아는 편입니까?					
89. 친구의 따끔한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90. 또래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합니까?					
91.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입니까?					
92.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편입니까?					
93. 어린 아이들을 잘 다루는 편입니까?					
94.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95. 나중에 커서 판매, 접수, 자원봉사, 경찰 같이 여러 사람들 접하는 일을 잘 할 것 같습니까?					
96.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97. 사람들 사이에 생긴 문제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독특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98.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인생을 보낼 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99.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자신의 기분을 잘 통제 할 수 있습니까?					

다중지능 검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0. 학교나 집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까?					
101. 개인적으로 중요한 선택, 예를 들어 방과 후에 어떤 것을 배울지, 어떤 과외활동을 할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잘 하는 편입니까?					
102. 자신이 가진 재능, 흥미, 성격을 고려해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편입니까?					
103. 자신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알고,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편입니까?					
104. 실패나 좌절했을 때 스스로에게 화를 내십니까?					
105. '자기발전'에 관심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성공한 사람의 책이나 잡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106.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독특한 방식을 찾곤 합니까?					
107. 애완동물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까?					
108. 동물을 돌보거나 잘 이해합니까?					
109. 애완동물을 훈련시키거나 야생동물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110. 나중에 커서 농장에서 동물을 키우거나 수의사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중지능 검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1. 여러 동물들의 특성, 습성의 차이를 쉽게 이해합니까?					
112.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의 상태(임신이나 건강 등)를 잘 파악하는 편입니까?					
113. 구름, 날씨, 동·식물 같은 자연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114. 식물을 키우거나 정원을 관리하는 것을 잘 합니까?					
115. 식물들 간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까?					
116. 화학, 전기, 에너지, 물리학, 또는 지리학 같은 자연 에너지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17. 캠핑이나 등산 또는 자연물들을 관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18. 자연경관을 찍고 자연에 대한 관찰일지를 쓰거나 풍경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까?					
119.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